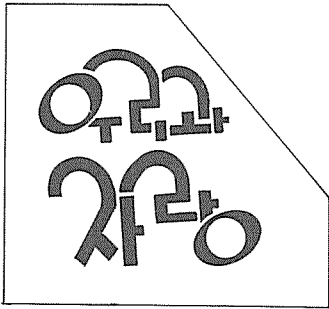




사진 뒷줄 좌로부터 서종숙, 이용구 주임, 차양근, 김정란
사진 앞쪽 박정 사무과장



대구지부 사무과

기나긴 여로의 기협이 바탕이 되어 건협
의 뿌리가 굳게 내리고 이제 그 열매

가 가지마다 주렁 주렁 달려서 영글어
가고 있는 이때, 여기 그 일익을 담당하
고 사랑과 화합으로 똘똘 뭉쳐서 싱그럽
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위해 열심히 달
려가고 있는 대구지부 사무과가 있다.

새벽안개가 걷히고 밝은 새아침이 오
면 유난히 활기에 찬 우리 지부는 하나
의 작은 도시가 형성된다. 내원자가 낮
설지 않은 분위기에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의 정리 정돈이며 자신의 업
무로 인하여 손님에 대한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
하는가 하면 전날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이 시
작되는 것이다.

지부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경리 서종숙양 인데 서양은 부수적인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본 업무를 시작하기 까지에는 가장 바쁘지만 어느 누가 무슨 일을 시키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소화시켜 나간다.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그 점이 바로 서종숙양의 장점이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를 했을 때 어린 티를 벗지도 못한 것 같았던 서양이 이제는 어엿한 서무과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직속상급자 이몽구 주임의 숨은 통솔력과 자상한 보살핌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농담 한마디 없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철저하고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온화하고 예의바른 성품을 가진 숨은 일꾼이다. 일상생활처럼 그의 몸에 베어 있는 상사나 동료에 대한 예의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속에서 서서히 동료들에게 스며들어 모범이 되며, 서무과의 사랑방 역할도 특특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버릴 물건도 한번 더 확인해서 재활용 하는 김정관양. 책상위에서 아름다운 다하고 시들어가는 꽃은 김양의 아이디어로 화장실로 옮겨져서 다시 한번 꽃 본연의 의무를 더하게 된다. 장소에 따라서는 시든 꽃이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더하게 되는가 보다.

지금 안정된 바탕 위에 우뚝 솟아 있

는 우리 대구지부가 있기까지에는 기협 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어려움과 발전 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지원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온 박정 서무과장님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업무처리나 지시사항은 차곡차곡 쌓아 온 연륜이 말해 주듯이 세심하고 노련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시야를 가지고 앞을 내다본다.

제도나 규율은 그 조직 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때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1974년 대구지부가 체제를 형성하며 업무연결사항이나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였을 당시 직원간에 얽힌 이해관계에 까지도 파고들어 인화단결이 잘되는 일등직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 이 화기에애하고 절도있는 우리 서무과가 있기까지에도 나무람에 앞서 자신의 새로운 일면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인격적인 대화에 역점을 두어 그 결실을 맺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다.

사랑 앞에서는 화려한 이상도, 과장도, 형식적 희생도, 그 아무 것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각자의 솔선하는 자세와 헌신적인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사랑으로 전체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고 건전하게 조성한 우리 대구지부! 잘익은 열매를 고이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 서무과 직원들은 오늘도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전심 전력을 기울인다.

〈글·이몽구 주임〉